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속보: 2012년 12월 2일

CUOMO 주지사, R 열차 서비스를 WHITEHALL STREET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다

이 열차 운행 서비스는12월3일 오전6시부터 시작한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초강력 태풍 Sandy로 인해 몇몇 지하철 역과 언더리버 지하철(under river tubes)이 수 백만 갤런의 부식성 바닷물로 침수된 후 처음으로 Broadway R 열차 운행 서비스가 12월 3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시Whitehall Street까지 연장되면서 34th Street 남쪽까지 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hitehall Street 역까지 열차 운행 서비스가 재개되면 Staten Island 주민들에게는 미드타운의 서쪽 지역까지의 주요 연결 서비스가 회복되어 Lexington Avenue 라인의 과밀이 해소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수송 담당 작업자들은 Whitehall Street R 역이 다시 운행될 수 있도록 열차 선로, 제3궤조, 양수기, 전기공급장치 및 제어기를 수리하고 교체하는 엄청난 일을 완수해냈습니다. 이로써 MTA New York City Transit이 34th Street에서 로어 맨해튼의 Whitehall Street까지 R 열차 서비스를 확대하여 Lexington Avenue 라인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MTA 회장 겸 CEO인 Joseph Lhot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송 담당 작업자들이 하루 24시간 밤샘 작업 끝에 Montague Tube를 다시 정상 운행시켜 놓았습니다. 이로써 로어 맨해튼에서 다운타운 Brooklyn까지 R 라인이 완전히 복구될 것입니다."

승객들은 이 깊은 역에서는 한 대의 에스컬레이터만 운행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역의 북쪽 끝(Stone Street 입구)에 자리한 에스컬레이터는 교체 작업을 위해 이전에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쪽 끝에 자리한 두 대의 에스컬레이터는 폭풍 당시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나, 한 대는 복구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든 승객들은 대신 Rector Street R 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어 맨해튼에서 다운타운 Brooklyn까지 R 열차가 운행되는 Montague Tube를 복구하려면 아직도 할일이 많습니다. 작업자들은 수 백가지의 신호 중계기, 선로 스위치, 차단 모터, 전기 배선을

수리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Brooklyn행 열차 운행 서비스는 12월 말쯤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